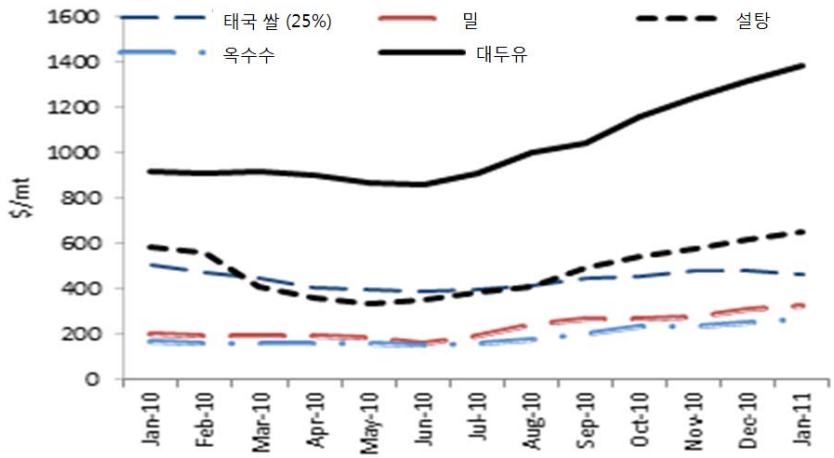
그래프로 보는 세계농업

세계은행은 지난 15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'전 세계적인 식량가격급등이 위험한 수준에 도달했으며, 특히 저개발국가의 정치·사회적 안정을 위협하는 요소가 되고 있다'고 경고하였다. 그리하여 이번 달 그래프로 보는 세계농업에서는 주요 곡물의 국제가격과 저개발 국가들의 주요 곡물 소매가격 변화율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.

그림 1 주요 곡물의 국제 가격



자료: World Bank Development Prospects Group.

밀 가격은 오스트레일리아의 홍수와 중국의 가뭄으로 인해 2010년 6월 이후 가격이 두 배로 급등하였다. 이러한 국제 밀 가격 상승으로 키르기스스탄(54%), 방글라데시(45%), 타지키스탄(37%), 몽골(33%) 등의 국내 소매가격이 상승하였다.

지난해 6월 이후 미국의 2010/11년도 곡물 예상 생산량의 하향조정과 국제유가 상승으로 바이오에탄올의 수요가 증가하여 옥수수 국제 가격이 73% 증가하였다. 높은 옥수수 국제 가격으로 브라질은 56%, 아르헨티나는 40% 국내 가격이 증가하였으며, 이로 인해 사료가격과 가공식품업체 큰 부담을 주고 있다.

쌀 가격은 다른 곡물에 비해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며, 앞으로의 전망도 안정적일 것으로 예상된다. 하지만 베트남과 부룬디는 각각 46%, 41% 국내 가격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, 인도네시아, 방글라데시, 파키스탄은 19% 증가하였다.

설탕 가격은 브라질, 오스트레일리아의 공급부족으로 지난해 6월 이후 73% 증가

하였으며, 식용유 또한 브라질, 아르헨티나, 말레시아, 인도네시아의 이상기후로 인해 가격이 증가하였다.

세계은행이 발표한 보고서에서는 지난해 6월 이후 밀, 옥수수, 설탕, 대두유 등 식료품 가격의 상승으로 저개발 국가의 4,400여만 명이 극도의 빈곤상태에 내몰리고 있다고 밝혔다.

표 1 중동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주요 곡물 소매가격 변화율

	국가	가격변화율(%)		국가	가격변화율(%)
밀	국제가격 (US$, HRW U.S Gulf Ports)	75	쌀	국제가격 (US$, 5% thai, Bangkok)	17
	키르기스스탄	54		베트남	46
	방글라데시	45		부룬디	41
	타지키스탄	37		방글라데시	19
	몽골	33		파키스탄	19
	스리랑카	31		인도네시아	19
	아제르바이잔	24		모잠비크	14
	아프가니스탄	19		캄보디아	-11
	수단	16		멕시코	-9
	파키스탄	16	옥수수	국제가격 (US$, HRW U.S Gulf Ports)	73
	브라질(도매가격)	14		브라질(도매가격)	56
	볼리비아(도매가격)	10		아르헨티나	40
	카메룬	-15		르완다(도매가격)	19
사탕수수	국제가격	88		페루(도매가격)	12
	소말리아	26		과테말라	8
	수단(도매가격)	-37		케냐(도매가격)	-8
	말리(도매가격)	-13		에티오피아 (도매가격)	-8
대두	부룬디	48		몰도바	-8
	카메룬	43	카사바	콩고민주공화국	20
	우간다	38		모잠비크	-39
	케냐	22		카보베르데	-26

주: 2010년 6월~12월

자료: FAO, GIEWS

작성자: 윤종열, 이정희